

“지구가 자전 한다”

조선에 알린 정위량 (丁緯良, 1827~1916)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이가 둥글고, 그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정위량(丁緯良)이라고 한다. 우리 역사의 첫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 제 2호(1883년 11월 10일)에 실린 ‘지구의 운전을 논함’에는 지구의 운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양사람 정위량이 쓴 글에 나온다는 것이다.

서양 과학을 소개한 ‘격물입문’ 저술

정위량은 중국에서 만든 한자식 이름으로 원래 이름은 윌리엄 마틴이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그는 1850년 중국에 와서 1916년 죽을 때까지 66년이란 긴 시간을 중국에서 살았다. 그 사이 4년은 미국에 돌아가 공부를 한 일도 있어 엄밀하게는 62년이라고 하지만, 이만하면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서양의 중국통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책에 지구의 운동을 설명하는 글을 썼기에 ‘한성순보’가 그를 마치 과학자인 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한성순보’가 말하는 마틴의 글은 바로 그가 저술한 ‘격물입문’을 가리킨다. 그는 기독교 선교사로 중국에 왔지만, 실제로는 과학자로 또는 영어 교육자로 더 크게 활약했고, 그렇게 중국 역사를 장식했다. 그는 당시 서양을 배우는 대표적 기관인 동문관과 경사대학당의 외국인 책임자(총장 또는 부총장)로 거의 30년을 일했다.

그가 당시 서양 과학의 대강을 소개하는 ‘격물입문’을 쓴 것은 1866년이다. 이 책은 물리, 화학, 천문, 기상 분야를 망라하는 기초 과학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이 한국 역사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한성순보’에 기사가 나기 1년 전, 지식영이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알 수가 있다. 지식영은 상소문에서 바로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1882년(고종 19년) 8월 23일자 ‘고종실록’ 등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우두를 보급한 것으로 유명한 지식영은 우리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너무 무지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사정을 극복하여 세계 대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적극 보급하자고 고종 임금에게 상소했다. 그가 중요하다고 소개한 책은 외국인들이 지은 ‘민국공법’, ‘조선책략’, ‘보법전기’, ‘박물신편’, ‘격물입문’, ‘격치휘편’ 등과 조선인의 저술로 김육균의 ‘기화근사’, 박영교의 ‘지구도경’, 안종수의 ‘농정신편’, 김경수의 ‘공보초략’ 등이 들어 있다. 그는 이 책들을 적극 보급하기를 주장했다.

지석영, 상소문에서 ‘격물입문’ 적극 보급 주장

이 상소에서 지식영이 추천한 책 ‘격물입문’이 바로 마틴의 책이고, 여기서 그는 지구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구의 운동을 처음 소개한 것은 이미 그보다 20여년 전에 나온 최한기의 ‘지구전요’(1857)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훨씬 뒤에 ‘한성순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운동 등 그 밖의 많은 과학 지식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1882년 지식영의 상소문은 오늘 한국근대사를 가르칠 때 틀림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역사 사실이 되어 있다.

지석영이 상소문에서 추천한 도서 가운데 첫번째로 언급한 ‘민국공법’ 역시 정위량의 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국제관계의 법적 구조를 소개한 이 책은 원래 정위량이 하버드대학의 법학교수였던 휘튼의 ‘국제법의 요소’(1836)를 번역해 낸 책이다. ‘국제법의 요소’는 20년간 유럽에서 미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1847년 하버드의 국제법 교수로 귀국한 휘튼의 대표작인데, 마틴은 1862년 상하이에 있을 때 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해 미국 외교관 등의 지원 아래 1864년 출판했다. ‘민국공법’은 4권 12장 231절로 구성되었는데, 중국 청나라 정부의 외교부라 할 수 있는 총리아문은 그 유용

성을 인정해 300부를 찍어 각 관서에 비치하게 했고, 다음해에는 일본에서도 간행되었다. 조선에도 적지 않게 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도 한 부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영어 'democracy'를 중국 최초로 '민주'란 표현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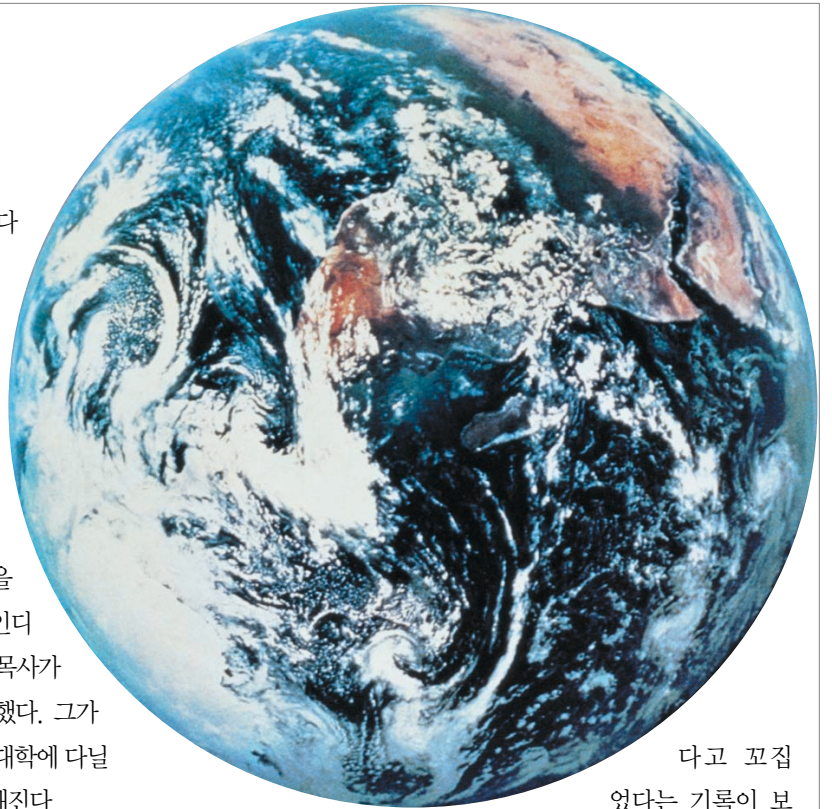
중국에서 60여년간 선교사·교수 등으로 활동

원래 미국 인디애나주의 목사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46년 인디애나대학에 들어가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잠시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다가 바로 인디애나주에 있는 신학대에 진학해 1849년에는 장로교 목사가 된다. 그는 교회의 파견으로 1850년 4월 홍콩에 도착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인디애나대학에 다닐 때 총장이었던 앤드루 와일리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 온 그는 처음 Ningbo에서 꼭 10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며 중국 문화를 익히고 중국어를 배웠다. 그는 일부러 선교사의 집을 떠나 중국인 사이에 들어가 살면서 말을 익힌 결과 중국어를 잘 배웠을 뿐 아니라 Ningbo가 속한 저장성 지방의 방언까지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1858년 중국과 미국이 텐진조약을 체결할 때는 미국 공사의 통역과 조약문안 작성을 주도할 정도였다. 이듬해 그는 미국 영사와 함께 베이징을 여행하고, 일본도 구경할 기회도 얻는다.

그가 미국에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은 그 직후였다. 1860년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는 3년 뒤에 박사학위를 얻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활동하게 된 그는 곧 1864년 동문관의 영어 교수가 되었고, 1869년에는 총교섭으로 승진되었다. 1898년 12월 31일 경사대학당이 문을 열자 당대 최고 실력자인 이홍장의 추천으로 그는 수임총교섭이란 자리에 임명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베이징 대학의 초대 총장에 해당하는 2품 자리였다. 1902년에는 장지동의 초청으로 우창대학당의 국제법 교수가 되었으나, 1908년 은퇴하여 1911년부터는 교회 일을 하다가 1916년 12월 17일 사망하여 북경의 서직문 밖 외국인 묘소에 묻혔다.

마틴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인디애나대학에서 주로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그는 중국에 오자 비교적 일찍 '격물입문'이란 과학개론서를 지어 출판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 역사에서는 지식성이 아주 중요한 책으로 추천한 바가 있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그리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다. 당시 중국인들은 이 책에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고, 문장도 시원치 못하



다고 꼬집었다는 기록이 보

인다. 특히 19세기말 중국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양계초는 '서양책 읽기'에서 이 책은 "꼭 읽을 필요는 없다"고 논평했다.

국제법 책도 번역, 조선 지식층에 큰 영향

그러나 '격물입문'은 조선 지식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보다는 그가 쓴 국제법이 중국이나 조선에서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다. 마틴은 '만국공법'을 번역해 소개한 것 말고도 '공법회통'이란 또 하나의 국제법 책도 번역해 냈는데, 스위스의 법학자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였던 블룬칠리의 국제법 책을 옮긴 것이다. 이 책은 1896년 조선 정부의 학부에서도 간행했는데, 1880년 중국어판에 있는 마틴의 서문, 1896년 조선의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의 서문이 함께 들어 있다. 1897년 9월 25일 '고종실록'을 보면 당시 조선 고위 관리들이 이 책 내용을 놓고 토론하는 장면도 보이는데, 그 결과로 머뭇거리던 고종의 황제 칭호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중국어에 통달한 마틴은 사서오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으로 '천도소원'을 지었는데, 중국에서 여러 차례 출판되었고, 일어와 조선어로도 번역되었다고 한다. 또 일찍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도 번역한 일이 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책을 써 남겼다. 앞서 소개한 국제법과 기독교 서적 말고는 대개 중국을 소개한 책이다. 또 자로는 관서, 호는 덕삼을 갖고 있던 그에게는 자서전으로 '화갑기억'이 있다. ㉔